

“위기를 기회로”...조선대 혁신 탄력 받나

진단평가 계기 구조조정 박차 강동완 총장 강력의지 표명 정원감축·학과통합 추진 교직원 내부도 공감대 확산

조선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될지 주목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해 2단계 평가를 받게 된 조선대가 이를 계기로 변화와 개혁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는 호남 사학을 대표하는 조선대가 위기를 기회 삼아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지난 21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쓴 입장문을 통해 “조선대가 최악의 사태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며 “총장직을 걸고 대학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뜻밖

의 결과로 충격을 안겨드렸다”며 “면목이 없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결과에 대해 대학본부에서 각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의신청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2단계 진단에서 대학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대학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2단계 평가에서는 ▲전공 및 교양 교육 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 운영의 건전성 등 3가지 항목을 평가받는다.

조선대는 이 중 교육분야 핵심역량 및 전공능력 배양에 대한 평가가 결과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장문은 그동안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로 한계에 직면했던 대입정원감축, 학과통합·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강 총장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조선대는 2단계 진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총장의 언급에는 이런 절박함이 담겨 있다. 그는 “오직 대학혁신만이 조선대교를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과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분야 혁신에 대한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선대는 학력인구 급감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를 중심에 둔 대학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대학 구성원도 구조조정 등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조선대는 17개 단과대학 80여개 학과로 사실상 학사·행정 부문에서 비대한 대학으로 손꼽힌다. 학과단위가 너무 세분화돼 있고 유사 학과 등도 적잖다. 이런 구조 때문에 조직이 비대해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재정운용도 어렵게되는 고질적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게 조선대 안팎의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의 미래를 개척할 새로운 학과 등의 신설이

묵이고 있다는 데 있다.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학부, 학과 이기주의의 벽이 공고해 개혁의 추동력을 얻지 못했다. 개혁의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 슬림화, 학과 통합·폐합 등을 수반하게될 개혁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인력 구조조정, 재배치에 대한 구성원의 불안감도 컸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대학기본 진단 평가를 계기로 조선대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하자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 교육 전문가는 “조선대가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내부진단과 자기반성을 통해 새를 짜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조선대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전남대학교가 진행한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 (전남대 제공)

심리검사·특강...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

29~30일 전남대

전국 고교생에게 진로 및 진학 상담을 해주고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규모 박람회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다. 전남대학교는 오는 29-30일 이를 동안 대학본부, 체육관, 융합관(컨벤션홀), 박물관 등 융복합캠퍼스 일원에서 '2018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를 개최한다.

'CNU 진로-진학 특목광장'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남대는 전국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전공 상담 및 체험, 대학생활 탐색, 진학특강, 심리검사와 자기이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동반 진로-진학 탐색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는 대화·상담·컨설팅·체험 등을 통해 고교생과 교사·학부모, 대학이 정보를 공유하는 쌍방향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행사는 진단·탐색·설계·실행의 4개 분야로 나뉘어 열린다.

'진단코너'에서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해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검사와 자기이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탐색코너'에서는 17개 단과대학 91개 전공단위가 참여해 1:1 맞춤형 전공 상담을 제공한다. 대학 산하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학생활 탐색을 통해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설계코너'는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입시 전형 컨설팅, 진학특강, 학부모 상담 등 정보 공유의 장이다. 전남대학교 1-클릭 홈페이지(<http://ao.jnu.ac.kr>)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실행코너'는 고교에서 이뤄지는 동아리활동, 인문학교실 등 창의적 실천활동 결과물과 대학의 진로-진학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수형 입학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는 거점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가 고교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선택과 꿈을 디자인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대학진학과 진로설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토익에 목맨 한국, 점수는?

676점...47개국 중 17위

한국 토익(TOEIC) 응시생 평균점수가 676점으로 세계 47개 나라 가운데 17위로 집계됐다.

한국 TOEIC위원회는 토익 출제기관인 ETS가 지난해 47개국에서 토익을 치른 499만여명의 성적(990점 만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토익은 공용어로서의 영어 숙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가 개발한 영어시험이다. 국내에서는 취업·평가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한국 응시생들은 듣기 영역에서 평균 369점, 읽기 영역에서 평균 307점을 받아 총점 평균이 676점이었다. 총점은 2016년(679점)보다 3점 내려갔다.

순위로 따지면 칠레(총점 687점)에 이어 47개국 중 17위였다. 듣기영역 성적만 보면 14위, 읽기 영역 성적만으로는 19위였다.

토익 성적 1위 국가는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로 평균 845점이었.

이어 독일(800점), 벨기에(772점), 레바논(769점), 이탈리아(754점) 등이 성적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아시아권 영어 유학지로 선호되는 필리핀은 평균 727점으로 7위에 올라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아시아 2위는 한국이었고 말레이시아(642점·22위)·중국(600점·30위), 대만(544점·37위), 홍콩(527점·38위), 일본(517점·39위)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동강대는 최근 '2018 DK드림 JOB투게더'를 열어 졸업생과 재학생이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동강대 제공)

동강대 학생들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 만남을 통해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

동강대는 최근 광주 삼우자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2018 DK드림 JOB투게더' (졸업생 워크숍)를 개최했다.

동강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초청해 재학생 후배들과 취업 정보 등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건축토목조경학부, 소방안전과, 전기전자과, 간호학과, 보건행정과, 안경광

학과, 임상병리과, 호텔조리영양학부, 보육복지과,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토지정보관리과, 호텔관광과, 뷰티미용과, 사회체육과 등 졸업생 25명과 재학생 50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마음열기 게임', 후배들의 선배 사인받기 미션수행 등을 통해 첫 만남의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며 친목을 쌓았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통과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을 들으며 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너&나&우리 취업 토크 콘서트' 시간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었다.

동강대는 행사 후 졸업생·재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재학생은 “졸업 후 취업 생각을 하면 약간 답답했는데 선배들을 만나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 선배들의 격려가 힘이 됐다”고 말했다.

졸업 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졸업생은 “저 역시 학생시절 졸업을 앞두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후배들에게 제 경험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후배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대, 베트남인 대상 '뷰티 아카데미'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진재)는 25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해외교육생(베트남 뷰티산업 종사자)을 대상으로 뷰티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여대가 주관하는 2018년 해외교육생대상의 뷰티아카데미는 광주시가 지역의 우수한 뷰티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체험, 문화관광을 통해 '뷰티도시'로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중점 추진중인 사업이다. 뷰티교육 국제화를 통해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도 있다.

광주여대는 2015년부터 광주시와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 뷰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1, 2차로 나누어서 진행

하고, 1차에는 31명의 방문 교육생을 대상으로 6박7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뷰티교육은 원하는 전공교육에 따라 15시간 이상 진행되며, 뷰티미용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따라 이론·실기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광주의 뷰티업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 해보는 뷰티체험과 광주의 역사 및 문화, 음식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문화관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광주여대 미용과학과 관계자는 “해외 교육생 대상 광주시 뷰티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아시아 문화 뷰티 교육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베트남과 뷰티교육 및 문화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제품 | SAMSUNG LG